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명료하건만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마음을 구할 수 있다면  
깨침도 손바닥 뒤집듯 쉽습니다.

범어사 선덕 대정 스님



포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이 조계종 제23회 포교대상(원장 혜총·79)은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문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3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무산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그동안 만해축전에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을 거명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아 부끄럽다. 지금까지 만해축전 개최에 몰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수성 前 국무총리, 시조인들, 신흥사 본말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수상의 공덕을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무산 스님은 이날 이사장으로 있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수상한 대원상 수상금과 포교대상 수상금을 포함한 2000만원을 논산육군훈련소 신축법당 기금으로 기부했다.

관련기사 16·17면

글=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조계종 교구제 이제 바꿀 때

지역불교를 활성화하고 각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며 현실 타당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반박도 거세다. 범안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월 26일 열린 한국불교종흥 대토론회에서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현행 교구제는 지자체 행정단위와 일치하지 않

아 도심 포교 공동화 등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현행 교구제의 대안으로 교구별 신설과 광역자치단체의 교구 신설, 말사 100개 기준의 교구 분구제 도입, 교구중회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교구 자체를 강화해 교구 관할권을 확립하고 도심 포교도 활성화 하자는 주장이다. 객석에 있던 교육원장 현승 스님도 현행 교구제 정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현승 스님은 "70년대 초에 150개 안 되던 지자체들이 지금은 23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자체에 일대일로 대응을 해야함에도 종단의

교구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범승 스님도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 모두 실시해야 한다. 종단이 이것을 놓치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대응할 방안이 없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답이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안 스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회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법제 개정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前 총무원

장 월주 스님도 그래서 지역포교 거점 도량을 추진하셨다. 여러 현실상 이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또 "분구의 경우도 사각과 행정단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거점 사찰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영 호남불교문화원 기획실장도 "교구문제는 스님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재가자 입장에서는 사찰현황을 조사한 정확한 기초자료 확립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7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따져보자 '팔경계' 알아보자 '부동주'

5일 오후 1시 동국대서

10월 17일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장에 운집한 1500여 비구니 스님. 종단 참여에 대한 열망과 달라진 비구니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이런 비구니스님들의 열망과는 달리 스님들은 항상 '비구니 팔경계'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비구니 팔경계와 교단 화합을 우선시한 부동주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과 일본에서 불교를 공부한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일불교유학생 교류회는 11월 5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가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이 '비구니 팔경계에 관한 고찰'을,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율장에 나타난 부동주에 관하여'를 주제발표 한다. 주제발표 토론자로는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前海인사 율원장 혜승 스님 등이 참가한다. 종합토론에는 교계 원로인 원두 스님(불교교단사연구소장), 혜남 스님(통도사 율원장), 이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와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이들은 비구니 부총무원장제도 신설 제안 등 비구니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쏟아 낼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사고

## 도반을 모십니다

불교계 최고 전문지 <현대불교신문(현불뉴스)>이 신심과 열정을 갖춘 인재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의 정법을 통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 모집부문  | 전공분야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
| 현대불교신문(현불뉴스) | 취재기자(신입·경력)<br>편집기자(경력)   | 전공 제한없음 | 0명   | 서울   |
| 지원자격         | 가. 2012년 2월 4년제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br>단, 해외소재 대학의 경우 기졸업자에 한함   |         |      |      |
| 전형방법         | 가. 서류전형<br>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불교·일반상식)<br>다. 면접  |         |      |      |
| 제출서류         | 가. 이력서<br>나. 자기소개서<br>다. 포트폴리오(경력자에 한함)   |         |      |      |
| 기타사항         | 가. 10월 26일~11월 4일까지 이메일 접수<br>(formula666@paran.com)<br>나. 홈페이지 www.hyunbul.com<br>www.hyunbulnews.com 참조 |         |      |      |

## 특별기획 종교간 평화...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화합과 상생을 강조하셨지만 그 이전에 중도를 섰었다. 화합과 상생에도 경도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갈등은 평화를 깨는 악이기만 하지 않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반)

의 종교평화선언 초안이 발표된 8월 이후, 불교에서 말하는 평화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부지는 계승학 권위자 이자랑 박사(일본 동경대)와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을 지면에 초대해 '불교와 평화'를 주제로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관련기사 9·15면**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힘찬전문점  
**심향갤러리**  
침향복장물·침향염주·침향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860호 CONTENTS

- 종합 2
- 조계종 내년 예산 221억원  
씻을 수 없는 상처 10·27  
자승 스님, 세계 향해 평화 연설
- 기획·인터뷰 3·5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혜원 스님(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 현장속으로 11
- 조계사 교리경진 대회
- 봉은사 3000배 철야경진 13

## 국내외 석학 모여 불교역할 말한다

원각불교사상연구, 11월 12~13일 금강대서 국제학술회의

국내외 석학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1월 12~13일 금강대에서 '미래세계와 불교'를 주제로 상월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는 12일 오전 10시 금강대 대강당에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다. 이어 권기종 원각사상연구원장이 '미래세계의 종교와 원각사상'을,

美 스탠포드대 폴 해리스 교수가 '미래세계와 불교'를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제1세션은 '종교는 미래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2세션은 '사회갈등의 조정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튿날 9시 40분 시작되는 제3세션은 '다문화시대 종교간의 화합' 제4세션은 '과학시대의 불교' 제5세션은 '과학시대의 불

교' 제6세션은 '미래사회와 원각사상'을 주제로 열린다. 발표자로는 김용표·황순일 동국대 교수, 윤원철 서울대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 국내학자와 아상가 티라카라트네(스리랑카 콜롬보대), 레오나드 스위들러(美 템플대),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등 해외학자 30여 명이 나선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 권기종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전대중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사의 뜻을 기리는 행사이다. 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물음을 던져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2012학년도 대학입시생 가족을 위하여



## 걱정하는 '나'를 내려놓는 대행스님 법문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할 때 닦쳐오는 일들에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도 생각지 말고 닦쳐올 미래도 생각지 마시고, 남의 소리 듣고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지도 마십시오. 참으로 자기 근본을 믿는 마음은 '나'라는 것을 넘어 버리는 마음입니다. 그 '나'라는 것은 이런 저런 것을 걱정하고 지나간 것을 후회하며 자기에 대해 고정되게 생각하여 스스로 한정짓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自佛)이 하는 거다' 하고 관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중심, 즉 자불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으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음은 어떠한 개별적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한데 합쳐진 것이 한마음입니다. 그 한마음을 일러서 여러분을 형성한 근본, 자불(自佛)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부처에게 다 맡기고 이 몸은 부지런히 뛰는 그런 패기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